

‘400억대 수당 파동’ 광주 출산·인구 얼마나 심각하나

합계출산율 0.81...전국 최저에 해마다 감소세

어린이집 2017년말 1240개서 올해 1074개로

총인구 150만 턱밑 갔다가 6년 연속 하강곡선

광주지역 출산·보육수당이 200억 원대 삭감 논란 끝에 가까스로 되살아나면서 지역 출산율과 인구추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과 소위 ‘수당 먹튀’ 등 실효성 논란은 별건으로 두고 출산, 보육 환경만 들여다보면 단순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 최악의 벼랑 끝 흐름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현재 총인구는 145만1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9만290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49만6000여 명, 2016년 148만9100여 명, 2017년 148만5000여 명, 2018년 148만2000여 명, 2019년 148만2000여 명 등 6년째 하강곡선을 그어 있다.

광주시 인구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도와 분리될 당시 106만 명에서 2004년 140만 명 시대를 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효과 등으로 2014년 150만 명 턱밑까지 갔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시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로 잡은 장래인구 역시 2030년 141만 명, 2035년 138만 명으로, 감소 추이와 맥을 같이 해 전망이 밝지 않다. 원도심과 상무지구를 양대축, 첨단·송정·백운동을 3부도심으로 2025년까지 인구 17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과도 거리가 멀다.

인구 증가의 지렛대가 될 출산율은 더욱 심

각하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5에서 이듬해 0.97, 2019년 0.94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는 0.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가입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가 1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0.92명보다 적고, 전국 최고 출산율인 영광(2.54명)보다 3배 가까이 적은 수치다.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추면서 어린이집은 폐업이 늘고 있다. 2017년말 1240개이던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올해 1074개로 줄고, 정원충족율도 73.9%에서 66.4%로 떨어졌다.

“이러다간 지역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80만~680만원의 출산·육아수당 지급계획을 세웠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 부족 등으로 반토막 삭감된 뒤 다시

부활시키는 진통 끝에 406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정부의 영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전담 확정되면서 2년 뒤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시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2년간 총 1500만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이중 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출산·육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지, 아니면 줄일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월 10만원의 육아수당으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 과감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흑산도 설국으로 가는 길

16일 전남 신안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 내린 많은 눈과 일주도로의 대비가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전남 조류독감 유입경로 ‘왕겨’로 추정...방역 강화



전남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바이러스가 왕겨살포 과정에서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영암과 나주, 장성 육용오리 농장 5곳과 오리도축장 1곳 등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7농장의 오리 16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철새의 분

변 등이 묻은 논에서 생산한 왕겨가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반입되면서 바이러스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과 함평 고막원천, 담양습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철새가 먹이활동을 위해 인근 논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퍼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야생철새 분변 묻은 왕겨 농장에 유입 농장별 방역초소 설치·차량진입 통제 순천·함평·담양 철새도래지 AI 발생

이에 따라 왕겨·가축·사료차량 등은 농장 진입 전 반드시 통제초소와 농장 입구에서 소독을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왕겨살포기 바퀴 등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왕겨살포 후에는 농장 내부를 다시 한 번 방역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리농장 161곳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이동 범위가 넓은 사료차량의 경우 농장 진입 전 해당 시·군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농장별 집중 방역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환기자

곡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드리는 연말선물

“사진엽서집 나눔 이벤트”

올해 코로나19로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곡성 사진엽서집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소진시까지

배송 무료배송

발송일 12월말 일괄 배송

참여 방법 곡성군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접수중!
http://blog.naver.com/gokseong_love

문의전화 061) 360 - 8225 곡성군 스마트홍보팀

☆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주세요 (패키지 당 10장)

풍경편
곡성 풍경사진 10장 묶음

장미편
어여쁜 장미사진 10장 묶음